

1. 콘크리트 주택의 특성과 생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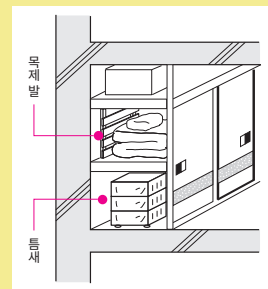
(1) 결로 · 곰팡이 · 진드기 · 휘발성 유기화합물

◆환기 · 통기◆

최근의 주택은 냉난방 효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에 비해 고기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결로, 곰팡이, 진드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문제도 발생하여 환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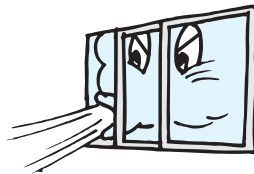
◎환기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 창문과 새시의 작은 창을 자주 여닫거나, 창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는 환풍기를 종종 틀어 실내 통풍이 잘 되게 하십시오.
- 벽장이나 상부 벽장에 물건을 수납할 때는 발을 깔거나 바닥과 벽 사이에 1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맹장지는 항상 약간(3cm 정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 가구, 오디오, 피아노 등은 가급적 벽에서 떨어뜨려 뒤쪽에도 통풍이 되게 하십시오.
- 환기를 더욱 철저히 하려면 실내외 공기를 충분히 바꾸기 위해 창문 새시 뿐만 아니라 실내 나무문까지 활짝 열고 연속 30~60분간 하루 2~3 회 환기를 하십시오. 또한 실내(화장실, 세면실, 욕실 등) 환풍기는 가능한 한 장시간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부 주택에서는 상시 소풍량 환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시 환풍기를 작동시키면 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 열린 창문 근처에서 동시에 환풍기를 돌리면 공기가 국소적으로 순환하여 방 전체에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주의

강풍이 부는 날, (특히 고층 주택에서) 창문이나 발코니 쪽 유리문 등을 열어두면 실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실내의 문이 세차게 여닫혀 경우에 따라서는 문이 파손되는 등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기 · 통풍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난방기기◆

개방 연소형 난방기기(실외 배기통이 없는 석유난로, 가스난로, 팬히터 등)는 실내에 수증기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을 방출하므로 사용설명서에 따라 환기를 하십시오.

◆결로◆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이나 유리창 등에 붙고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결로가 생깁니다.

수증기는 아침저녁으로 요리나 목욕할 때 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방 연소형 석유난로, 가스난로, 팬히터의 사용, 그리고 사람의 몸 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증기는 발생원의 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택의 각 방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은 곳, 예를 들면 북쪽 거실이나 벽장 속 등 뜻밖의 장소에도 의외로 수증기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창문 유리면이나 차가운 외기와 접하는 북쪽 거실 벽, 벽장 벽, 욕실, 화장실 벽 등입니다. 특히, 벽장은 외기에 의해 벽이 차가워지는 데다 이불 같은 수납물로 공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가 나빠 더욱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로를 그대로 두면

결로를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벽의 페인트와 벽 직물 등이 벗겨지게 됨은 물론, 다다미와 목재가 썩고 금구류가 녹슬어 쾌적한 생활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택 자체의 수명도 단축됩니다.

◎결로 방지 대책

- 식사 준비나 식사 중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므로 환풍기를 돌리는 등 조치를 하십시오.
- 목욕 후 욕조에 온수가 남아 있을 때는 반드시 욕조에 덮개를 덮고, 욕실의 환기창을 열거나 환풍기를 돌려 욕실 수증기가 거실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 물방울이 흘러내려 하부 프레임에 쌓이므로 창문 새시나 유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 난방은 자제하여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가습기 사용은 결로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

곰팡이는 적당한 온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결로로 인한 얼룩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곰팡이가 발생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곰팡이 제거제, 곰팡이 방지제 등을 사용하여 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주의

염소계 표백제와 산성 세제·세정제를 함께 사용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표백제, 세제, 세정제 등을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어보십시오.



◎곰팡이 방지 대책

- 결로 방지와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되게 하십시오.

◆진드기◆

일반적으로 진드기는 여름철에 발생·활동하며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난방기기와 가습기 보급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연중 주택 내에서 진드기가 활동하기 쉬워져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가 발생하기 쉬운 4가지 조건

- ① 온도가 25~30℃
- ② 습도가 70~85%
- ③ 먹이가 되는 먼지, 흘린 음식물, 비듬 등의 존재
- ④ 숨어들 수 있는 장소

◎진드기가 발생하면

진드기가 발생하면 가려움증, 부종, 여드름,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진드기 방지 대책

- 다다미에는 가능한 한 깔개(카펫, 러그류)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다미의 통기성을 떨어뜨려 진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서식처가 됩니다. 또, 가구 설치에 따른 패임을 예방하기 위한 양생 등은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통기성을 확보하십시오.
-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자주, 꼼꼼하게 제거할 것.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진드기 포획과 동시에 다다미 건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 환기·통풍에 유의하여 실내 통풍이 잘 되게 하십시오. 5~6월경부터 제습기를 사용하면 여름철 진드기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주택 내부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재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는 주택용 건재나 가구 접착제, 의류 주름 방지 등의 가공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로 부터 공기 중으로 퍼져 체질이나 컨디션, 기후 등과 연관되면서 눈의 통증이나 자극취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입주했을 때, 새 가구 등을 구입했을 때, 방문을 장시간 닫아둔 뒤에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책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환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입주 시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에 힘써 주십시오(환기에 대해서는 5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입주 후에는 적극적으로 환기를 하십시오.

특히 여름철이나 습기가 많을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웠을 때는 더욱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 입주 직후나 새 가구 등을 구입했을 때 「강한 냄새가 난다」, 「눈이 따끔거린다」, 「목이 칼칼하다」 등의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창문을 활짝 여는 등 충분한 환기를 하십시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만약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2) 바닥의 방수 및 누수

◆아래층으로의 누수를 조심합시다◆

UR임대주택에서 바닥에 방수 처리를 한 곳은 욕실뿐입니다. 콘크리트는 물을 조금만 흘려도 아래층으로 물이 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대부분은

○세탁기 배수 호스가 빠진 경우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서 물이 넘친 경우

○현관, 화장실 바닥을 물청소한 경우

○발코니나 복도를 물청소 하거나 화분에 물을 준 경우

등입니다. 부주의로 아래층에 누수를 발생시키면 아래층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천장, 다다미, 창호 등의 보수비와 깔개, 가구류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 방지 대책◆

◎세탁기의 배수 호스는 세탁기용 방수팬의 배수구에 확실하게 연결·고정하십시오. 급수 호스와 배수 호스의 연결 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또한 세탁기용 방수팬이 없는 주택에서는 세탁기의 배수 호스를 욕실 배수구까지 연장하거나, 세탁기를 욕실 쪽으로 옮겨 사용하는 등 배수 호스에서 욕실로 확실하게 배수될 수 있게 주의하십시오.

◎기저귀, 신문지, 티슈, 위생용품 등은 변기에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휴지를 흘려보내면 배수관이 막히거나 물이 넘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로탱크 안에 세정 방향제 등을 넣으면 내부 철물이 움직여 물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에어컨의 드레인 호스는 막힌 곳이 없는지 가끔 확인하십시오. 드레인 호스가 막히면 에어컨(실내기)에서 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현관·화장실의 바닥 청소는 걸레로 닦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복도나 계단에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발코니에서 빨래나 물놀이를 하지 마십시오.

◎발코니·욕실의 배수구는 항상 청소하십시오.

(3) 아래층 주택에 대한 소음

콘크리트는 의외로 소리와 진동에 민감합니다. UR임대주택은 문의 개폐음이나 화장실, 욕실의 물 흐르는 소리 등이 고려되어 있으나 집합주택의 특성상 어느 정도 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실내에서 뛰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마룻바닥은 다다미에 비해 소리가 전달되기 쉬우므로 카펫을 까는 등 아래층 주택에 소리가 울리지 않게 신경써 주십시오.

◎오디오, TV, 악기(피아노) 등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음량에 주의하십시오.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문, 창문 등을 여닫을 때 주의하십시오.

